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 디자인  
-2010 S/S~2015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최진영 ·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Headdress Designs appearing in Haute Couture Collection  
-Focused on 2010 S/S~2015 S/S-

\*Jinyoung Choi · Jiyoung Kim†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data from studies of headdresses which might be helpful for creating new fashion styles. Headdresses in 2010 S/S-2015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years, season, brand, type, color, material, and image. The types of headdresses were categorized as hat, hood, decorative or complex types. The hat type was elegant with a modern style, and coexisted with an exaggerated avant garde style. The hood type wrapped around the head with many examples having a distinctive sculpture on top of the knot. The decorative type varied dramatically in form and materials. The complex type was a blend of all the other types with the designer's individuality being out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headdresses were revealed first, as an enlargement of the materials category, second, as an expression of dramatic forms, and third, as complete coordination of the creative fashion image. The headdresses illustrate the designer's creativity in producing a variety of images. Henceforth they will be important as fashion items and independent designs in fashion styling.

**Keywords** : headdress(헤드드레스), haute couture(오트 쿠튀르), fashion collection(패션 컬렉션), total coordination(토탈 코디네이션)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Kim, Tel. +82-43-261-2783  
E-mail: coco7@cbnu.ac.kr

## 1. 서론

인간은 자신의 몸을 아름답고 매력 있게 장식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아름다움을 위한 치장의 욕구는 기본적인 본능으로 의복착용의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이다. 특히 머리에 하는 장식은 얼굴과 함께 시선이 집중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 변천을 거듭하며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여 왔다. 머리에 행하는 장식 일체를 헤드드레스(headress) 혹은 헤드기어(headgear)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수단에서 출발하여 이후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영향(Mok & Cho, 2008)으로 인해 변화하였다. 시대를 대변하는 패션은 과거 신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과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 디자이너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전통적인 미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과 형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험적인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장식하기 위해서나 혹은 의례적인 목적으로 착용되고 있다.

현대에는 의례적인 목적보다는 치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토탈 코디네이트의 보편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토탈코디네이트는 의상과 메이크업, 각종 장신구를 조합하여 전체의 통일감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헤드드레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유명한 모자 디자이너인 스테판 존스(Stephen Jones)가 헤드드레스에 대해 ‘마치 케익 위의 체리처럼 옷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며 전체적인 스타일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준다.’(“Stephen Jones & the Accent of Fashion”, 2010)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와 같이, 헤드드레스는 그 하나만으로도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해 준다.

독특한 디자인의 헤드드레스는 평범한 의상도 특별하게 탈바꿈하게 하며 스타일링에 악센트를 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왕실이 현존하는 영국이나 모나코, 스웨덴 등 로얄 패밀리의 패션을 보면 의상에 어울리는 헤드드레스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연

출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식을 위한 웨딩 스타일 연출에 있어서도 베일이나 티아라와 같은 헤드드레스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이제 헤드드레스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헤드드레스는 패션 스타일링 연출에 있어 중요한 아이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헤드드레스에 관한 고찰연구로 Yoo & Kim(1999)이 세계 민족의 헤드드레스 유형을 지역별로 분류하였고, Yoo(2004)가 서양의 역사복식에 나타난 의복과 헤드드레스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헤드드레스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이나 인상평가에 관한 연구(Jeong, Jeong, & Kang, 2005; Kim & Lee, 2011; Kim & Lee, 2013)도 이루어져 헤드드레스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드드레스에 대한 디자인 분야의 연구로는 패션이미지와 헤드드레스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나(Jeong & Jeong, 2008), 특정 디자이너의 컬렉션(Kim, 2012)이나 영화에 나타난 헤드드레스(Lee, 2006), 로얄 패밀리의 모자패션(Kim & Lee, 2014) 등과 같이 세부적인 주제로 접근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헤드드레스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창의적 디자인 표현이 특징적인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오트 쿠튀르 컬렉션은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수공예적인 예술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헤드드레스 디자인 분석은 다음 세대 디자이너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과 패션 스타일링 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경향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밝혀 창조적인 디자인 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헤드드레스 개념 및 역사

인간의 신체에서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인간의 생존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적, 정서적 능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는 상징적이나 신체적 의미로서 중요시 여겨져 왔다. 또한 여러 문화권에서 권력을 상징하거나 머리위로 펼쳐진 무한의 공간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도구로 여겨져 왔다(Yoo & Kim, 1999). 이에 머리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써 독창성과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거듭 발전하여 왔다.

헤드드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 부분을 덮는 것의 총칭으로 햇, 캡, 보닛, 후드, 베일 등의 모자류와 가발, 헤어스타일, 헤어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 머리장식 전반을 가리킨다(Cho, 1995). Charlotte Mankey(2003)는 헤어드레스를 장식적 기능 혹은 실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헤드밴드(headband), 헤드클로스(headcloth), 헤드웨어(headwear), 헤드레일(head rail) 등과 동의어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헤드드레스는 머리부위가 상대방을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으로 인체의 가장 민감하고 공격받기 쉬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Yun & Song, 2012).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이후 헤드드레스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는 헤드드레스가 의상과 함께 사회적 신분과 성별의 가장 뚜렷한 지표로서 상징적인 경계를 유지하거나 허무는 데 유용한 지표들 중 하나이며, 착용자의 사회계급, 또는 동경하는 사회계급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곧 사회 내에서의 위치와 신분을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가 됨을 의미한다(Crane, 2000).

헤드드레스는 고대부터 지역과 풍토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착용되었다. 이집트에서는 더운 기후로 노출이 많은 의상과 함께 신분을 과시하는 화려한 헤드드레스가 사용되었고, 그리스에서는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넓은 챙이 달린 모자인 페타서스

(petasus)가 처음 등장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보석, 리본, 망 등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스테판(stephane)이나 베일 등이 사용되었다(Yun & Song, 2012).

유럽 중세에는 종교의 영향으로 베일 등으로 머리를 감싸는 보수적 형태의 헤드드레스가 대부분이었으나 후기에는 터번 형이나 뿔 모양 등의 다양한 헤드드레스에 귀한 고가의 보석을 장식해 유산 목록에 들어가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귀족들과 부를 축적한 신중귀족들이 복식을 비롯해 헤드드레스까지 위엄이 있으면서도 과장된 인공미를 보여주었는데 당시에는 베일 형태의 후드가 영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주된 헤드드레스였다. 로코코시대로 들어가 헤드드레스는 가발과 여기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과장되고 화려하게 어우러져 복식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거대한 헤드드레스가 유행하였다. 여기에 차양이 넓은 픽처 햇(picture hat)은 리본, 깃털, 꽃 등으로 장식하여 커다란 머리 모양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Black & Garland, 2005).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 근대의 헤드드레스는 유행계급을 중심으로 웨이브 진 헤어에 챙이 넓은 모자나 터번 등에 깃털, 리본, 조화, 레이스, 구슬, 망 등의 다양한 장식을 하여 복식과 함께 당시의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특히 모자가 필수였던 당시는 보다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모자를 치장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깃털 장식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의 사용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깃털의 부착은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사용되었다(Mendes & Hays, 2003).

이처럼 헤드드레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에 와서 패션 아이템이라는 부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여기에 창의성과 예술성이 접목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2. 헤드드레스의 유형과 기능

헤드드레스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 복식의 한 형태로 착용되어져 왔으며, 사회와 종교 그리

고 문화적 산물임과 동시에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강한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Yoo & Kim, 1999).

헤드드레스의 유형은 머리부위를 장식하는 방법이나 외관의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헤드드레스 전반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n & Song(2012)은 헤드드레스를 가발, 모자, 토크, 터번, 베일, 헬멧, 장식형으로 구분하였다. Yoo & Kim(1999)과 Kim(2012)은 형식으로 머리를 덮는 형태를 스카프형, 운두와 챙과 같이 모자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모자형, 기타를 장식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스카프 형은 다시 헤드커치프, 베일, 터번 등의 유형으로, 모자형은 부드러운 챙이 달리고 뒤에서 머리를 감싸는 보닛(bonnet)형과 일반적인 챙과 운두가 있는 햇(hat)형, 챙이 없는 캡(cap)형으로 나누었다. 뚜렷한 형태 없이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로 머리부위를 꾸미는 유형을 장식형으로 공통적으로 분류하였다.

헤드드레스 중에서 모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Jeong & Jeong(2008)은 모자를 챙의 유무로 크게 구분하였고, Kim & Lee(2014)는 모자의 외관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입체형, 베레나 후드처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형태가 일그러진 형을 이루다가 착용하면 원래의 형태로 착용이 가능한 평면형, 입체형과 평면형의 절충형인 혼합형, 전형적인 모자의 형태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변형된 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Yang & Chang(2011)은 헤드드레스를 기후에 대한 목적, 의례적 목적, 지위와 위엄의 목적, 위생의 목적, 패션의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기준으로 헤드드레스의 기능을 실용성, 상징성, 장식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용성을 갖는 헤드드레스는 자연환경조건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더위나 추위로 인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머리를 가려 쾌적함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며, 일례로 중동지역의 스카프 형태의 베일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러시아 지역에서는 혹한을 견디고 건물에서 떨어지는 고드름과 얼음을 막기 위하여 동물 털

로 만든 두툼한 샤프카가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다.

상징성을 갖는 헤드드레스는 복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확립된 행동의 양상, 규범을 표현하며, 신분이나 계급, 친족관계, 성역할, 종교 등을 표현한다(Kim, 2013). 19세기 영국에서 모자를 사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만 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소속계층과 성장배경, 결혼 여부까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모자를 쓰지 않은' 여성은 하층 계급의 여성으로 간주하였다(Philippe, 2007). 이는 권위와 계급, 부와 명예를 상징적인 의미로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왕관이나 판사의 가발, 자신이 포획한 짐승의 털로 장식한 헤드드레스 등은 착용자의 신분이나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Kim, 2012).

장식성을 갖는 헤드드레스는 인류의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머리 부위는 시선이 집중되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아름다움을 표현할 목적으로 장식되었다. 오스트리아 빌렌돌프에서 출토된 비너스 여성상은 구석기 시대에 속하는 4만 년 전의 것으로 나체인 여성상임에 불구하고 머리에 소용돌이처럼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Cho, 2004).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미적으로 인한 머리 장식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실험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Choi & Choi, 2014).

이처럼 헤드드레스는 착용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신분이나 계급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에는 상징성의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실용성과 장식성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헤드드레스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고 대량의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최근 5년인 2010 S/S ~ 2015 S/S까지 오프 쿠티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

드레스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패션전문잡지 (Code Collection)와 인터넷사이트(www.style.com, www.samsung design. net)를 중심으로 이 기간 내에 헤드드레스가 사용된 컬렉션을 전수 조사하여 1,433점의 자료를 얻었다. 그 결과 헤드드레스의 비중이 큰 컬렉션을 분석하기 위해 헤드드레스가 10점 이하로 나타난 컬렉션은 제외하였고, 컬렉션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헤드드레스는 한 점으로 보아 총 1,201점을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Table 1).

## 2. 분석 항목

분석항목은 연도, 시즌, 브랜드, 유형, 색상, 소재, 이미지로 세분화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S/S, F/W시즌으로 나누어 총 11개 시즌을 대상으로 하였고, 브랜드는 샤넬, 크리스찬 디올을 포함한 총 11개 브랜드를 살펴보았다.

헤드드레스의 유형은 Yoo and Kim(1999), Jeong & Jeong(2008), Kim(2012), Kim & Lee(2014)의

Table 1. 2010 S/S~2015 S/S Haute Couture Headdress Distribution Frequency(%)

	S/S		F/W		Total
2010	Chanel	65	Christian Dior	17	191
	Christian Dior	13	Jean Paul Gaultier	47	
	Jean Paul Gaultier	36			
	Valentino	13			
2011	Christian Dior	10	Chanel	74	253
	Jean Paul Gaultier	32	Christian Dior	18	
	Armani Privé	38	Jean Paul Gaultier	15	
			Giorgio Armani	44	
		Valentino	22		
2012	Chanel	27	Chanel	47	233
	Giorgio Armani	42	Giorgio Armani	52	
	Jean Paul Gaultier	24	Jean Paul Gaultier	41	
2013	Armani Privé	11	Chanel	29	152
	Chanel	62	Giambattista Valli	14	
			Jean Paul Gaultier	36	
2014	Alexis Mabille	23	Armani Privé	21	210
	Armani Privé	44	Giambattista Valli	45	
	Atelier Versace	15	Schiaparelli	18	
	Jean Paul Gaultier	44			
2015	Chanel	72			162
	Giambattista Valli	45			
	Jean Paul Gaultier	25			
	Viktor & Rolf	20			
Total	661		540		1,201

선행연구를 토대로 머리를 감싸는 구성 방법과 외관의 형태에 따라 크게 모자형, 두건형, 장식형, 복합형으로 나누었다. 모자형은 운두가 있고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챙의 크기별로 대, 중, 소로 구분하였고, 반구형으로 앞부분에만 챙이 있는 캡(cap)과 부드러운 형의 베레(beret)로 나누었다. 두건형은 머리전체를 감싸며 대부분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베일, 후드, 터번, 기타로 나누었다. 장식형은 모자나 두건형이 아니면서 장식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가발형, 머리망형, 헤어밴드·핀형, 관형, 입체 조형물형으로 구분하였다. 복합형은 모자형과 두건형, 모자형과 장식형, 두건형과 장식형, 모자형과 두건형과 장식형이 복합된 형태로 구분하였다.

컬러는 Kim and Lee(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면설의 기본 10색과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나누었고, 색상 수는 1~3색으로 살펴보았다. 배색은 단일, 유사, 대조, 악센트, 콤플렉스, 배색 없음, 기타로 나누었고, 톤은 비비드, 스트롱, 라이트, 다크,

모더레이트, 뉴트럴로 나누었다. 소재는 패브릭, 플라스틱·비닐, 메탈, 자연물, 기타로 나누었고, 이미지는 로맨틱, 엘레강트, 아방가르드, 모던, 에스닉, 기타로 구분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헤드드레스 디자인의 전반적 분석

###### 1) 시즌·연도

헤드드레스는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연도별로 볼 때 Table 3과 같이 나타났는데, 2011년이 2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13년이 12.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즌별로 보면 S/S 시즌이 55.0%, F/W가 45.0%로 S/S 시즌에 좀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패션 컬렉션에서 헤드드레스는 매년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Analysis of Item

	Item	Subsection
Year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eason	season	SS, FW
Brand	brand	Chanel, Christian Dior, Jean Paul Gaultier, Valentino, Armani Privé, Giorgio Armani, Giambattista Valli, Alexis Mabille, Atelier Versace, Schiaparelli, Viktor & Rolf
Type	hat type	no brim, small brim, medium brim, large brim, cap, beret
	bandana type	veil shape, hood shape, turban shape, etc
	ornament type	wig, hairnet, hairband·hairpin, tiara, three-dimensional sculpture, etc
	mixed type	hat+bandana, hat+ornament, bandana+ornament, hat+bandana+ornament
Color	color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etc
	number of colors	monochrome, two colors, more than 3 colors
	color combination	identical, analogous, contrast, accent, complex, none, etc
	tone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Material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flower, plants, insect) etc(beads, stone, leather)
Image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2) 브랜드

브랜드별로 보면 사넬(31.3%), 장 폴 고티에(25.0%), 조르지오 아르마니 (11.5%), 아르마니 프리베(9.5%), 지암바티스타 발리(8.7%), 크리스찬 디올(4.8%), 발렌티노(2.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넬과 장 폴 고티에 컬렉션에서 헤드드레스의 사용률이 특히 높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탈코디네이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형

유형별로 보면 장식형(44.2%), 두건형(20.1%), 복합형(18.8%), 모자형(16.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장식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수공예적인 예술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3차원의 입체적인 조형물형(16.3%)이 가장 많이 나타나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장 폴 고티에와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가 여러 컬렉션에서 드라마틱하고 창의적인 헤드드레스를 발표하였다. 두건형에서는 패브릭을 이용해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터번형(9.4%)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실크나 비딩소재를 머리에 밀착되게 둘러 엘레강트한 이미지를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복합형에서는 모자와 두건의 복합형(10.4%)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모자에 베일이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모자형은 토크나 웨딩 캡처럼 챙이 없는 형(5.3%)이 가장 많았고, 캐플린 햇처럼 챙이 드라마틱하게 넓은 형(4.2%)과 함께 챙 없이 운두가 다양하게 변형된 독특한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다.

4) 색상 및 소재

색상을 보면 Table 6과 같이 Bk(46.4%), W(12.7%), PB(8.2%), YR(5.3%), Gy(5.1%) 등으로 나타나 특히 블랙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이트도 높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무채색의 비중이 매

Table 3. Analysis of Season & Year Frequency(%)

Season	SS			FW			Total
	661(55.0)			540(45.0)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01(100)
	191(15.9)	253(21.1)	233(19.4)	152(12.7)	210(17.5)	162(13.5)	

Table 4. Analysis of Brand

Brand	Frequency(%)
Alexis Mabilie	23(1.9)
Armani Privé	114(9.5)
Atelier Versace	15(1.2)
Chanel	376(31.3)
Christian Dior	58(4.8)
Giambattista Valli	104(8.7)
Giorgio Armani	138(11.5)
Jean Paul Gaultier	300(25.0)
Schiaparelli	18(1.5)
Valentino	35(2.9)
Viktor & Rolf	20(1.7)
Total	1,201(100)

우 높았다. 유채색에서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PB 계열과 다양한 톤의 YR계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상 수는 단색(65.0%), 2색(20.3%), 3색 이상(14.7%)의 순으로 단색 사용이 많았는데, 이는 전체적인 의복의 색상과 이미지 등 토탈 코디네이트를 완성하기 위해 색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색에서는 배색 없음(63.2%), 유사(15.3%), 대조(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상 톤은 뉴트럴(62.1%), 라이트(14.7%), 다크(8.8%) 순으로 나타났다. 2010 S/S~2015 S/S 시즌에서 색상 빈도는 단색과 무채색 계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모던한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헤드드레스에서 무채색의 사용이 많았다. 소재를 보면 Table 7과 같이 패브릭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11%), 메탈(10.8%), 플라스틱, 비닐(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헤드드레스 소재인 패브릭은 새틴, 시폰, 벨벳, 펠트, 트위드 등 다양한 재질감의 소재가 나타났다. 특히 패브릭 소재는 사용이 용이하고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며, 기타로는 가죽, 퍼, 머리카락, 종이 등이 있었다. 메탈은 얇게 처리되어 두건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골고루 나타났고, 플라스틱과 비닐은 주로 볼륨감을 형성하며 아방가르드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Table 5. Analysis of Shape

	Analysis	Frequency(%)	Total
Hat shape	beret	14(1.2)	202 (16.8)
	cap	8(0.7)	
	large brim	50(4.2)	
	medium brim	8(0.7)	
	no brim	64(5.3)	
	small brim	27(2.2)	
	etc	31(2.6)	
Bandana shape	hood shape	17(1.4)	242 (20.1)
	turban shape	113(9.4)	
	veil shape	81(6.7)	
	etc	31(2.6)	
Ornament shape	hairband·pin shape	118(9.8)	531 (44.2)
	hairnet shape	70(5.8)	
	three-dimensional sculpture shape	196(16.3)	
	tiara shape	14(1.2)	
	wig shape	51(4.2)	
	etc	82(6.8)	
Mixed shape	bandana+ornament	94(7.8)	226 (18.8)
	hat+bandana	125(10.4)	
	hat+bandana+ornament	5(0.4)	
	hat+ornament	2(0.2)	
Total			1,201(100)



Table 6. Analysis of Hue·Number of Color·Color Combinations·Tone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										Achromatic color			etc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36 (3.0)	64 (5.3)	47 (3.9)	24 (2.0)	11 (0.9)	13 (1.1)	31 (2.6)	98 (8.2)	13 (1.1)	31 (2.6)	152 (12.7)	61 (5.1)	557 (46.4)	63 (5.2)	1,201 (100)	
number of colors	monochrome					two colors					more than 3 colors					
	781 (65.0)					244 (20.3)					176 (14.7)					
color combination	identical		analogous		contrast		accent		complex		none		etc			
	26 (2.2)		184 (15.3)		101 (8.4)		39 (3.2)		87 (7.2)		759 (63.2)		5 (0.4)			
Tone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11 (0.9)		60 (5.0)		176 (14.7)		106 (8.8)		102 (8.5)		746 (62.1)					

Table 7. Analysis of Material Frequency(%)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	Etc	Total
	751 (62.5)	128 (10.7)	130 (10.8)	60 (5.0)	132 (11.0)	1,201 (100)

Table 8. Analysis of Image Frequency(%)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Total
	184 (15.3)	405 (33.7)	209 (17.4)	270 (22.5)	117 (9.8)	16 (1.3)	1,201 (100)

5) 이미지

헤드드레스 이미지 분석인 Table 8에 의하면 엘레강트(33.7%), 모던(22.5%), 아방가르드(17.4%), 로맨틱(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엘레강트 이미지는 넓은 챙과 화려한 장식에 더해진 모자형이나 우아한 실크 소재의 두건형에서 많이 나타났고, 모던 이미지는 챙이 없거나 짧은 모자형에서 시크한 이미지로 표현된 사례가 많았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장 폴 고티에, 스키아파렐리, 빅터 앤 롤프 등의 브랜드에서 다양한 재질과 과장된 형태감, 극적인 연출의 3차원 조형물 형의 장식형 헤드드레스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헤드드레스는 패션 스타일링 연출에 있어 이미지의 연출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헤드드레스의 유형별 분석

헤드드레스 유형별 분석에서는 모자형, 두건형, 장식형, 복합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각각 브랜드, 형태, 색상, 소재, 이미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모자형

브랜드별로는 장 폴 고티에(26.7%), 아르마니 프리베(24.3%), 샤넬(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고티에의 컬렉션에서 레오파드 무늬의

Table 9. Analysis of Design of Hats Frequency(%)

Brand	Armani P.	Chanel	Dior	G. Armani	J.P. Gaultier	Schiaparelli	V&R	Total						
	49 (24.3)	48 (23.8)	6 (3.0)	25 (12.4)	54 (26.7)	6 (3.0)	14 (6.9)							
Type	beret	cap	large brim	medium brim	no brim	small brim	etc							
	14 (6.9)	8 (4.0)	50 (24.8)	8 (4.0)	64 (31.7)	27 (13.4)	31 (15.3)							
Color	chromatic										achromatic			etc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4 (2.0)	12 (5.9)	2 (1.0)	14 (6.9)	4 (2.0)	1 (0.5)	9 (4.5)	8 (4.0)	3 (1.5)	7 (3.5)	23 (11.4)	5 (2.5)	86 (42.6)	24 (11.9)
	identical		analogous		contrast		accent		complex		none		etc	
Tone	1 (0.5)		45 (22.3)		10 (5.0)		1 (0.5)		28 (13.9)		117 (57.9)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2 (1.0)		6 (3.0)		9 (4.5)		36 (17.8)		22 (15.8)		117 (57.9)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		etc					
	133 (65.8)		5 (2.5)		41 (20.3)		15 (7.4)		8 (4.0)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4 (2.0)		32 (15.8)		31 (15.3)		109 (54.0)		23 (11.4)		3 (1.5)			



Figure 1.  
2013 FW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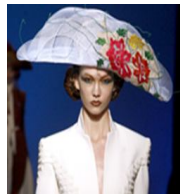


Figure 2.  
2010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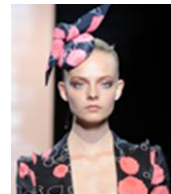


Figure 3.  
2011 FW Giorgio Armani  
-www.style.com

패브릭을 사용한 원뿔형 모자나(Fig 1), 19세기 바이콘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자형태(Fig 2)가 많이 등장했다. 형태별로 보면 챙이 없는 형(31.7%), 챙이 큰형(24.8%), 기타 (15.3%), 챙이 적은 형(13.4%)로 나타났는데, 챙이 없이 독특한 형태를 표현하거나(Fig 3), 반대로 드라마틱하게 챙이 넓은 형(Fig 4)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색상은 Bk(42.6%), W(11.4%) 등 무채색 계열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배색 없음이 57.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뉴트럴(57.9%), 다크(17.8%) 등의 톤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주로 패브릭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우아한 느낌의 공단이나 벨벳과 형태감이 잘 살아나는 펠트 등이 많았다. 그 중 2015 S/S 시즌 빅터 앤 룰프는 스트로우(straw) 모자에 꽃과 나무줄기 등의 자연 조형을 다양하게 장식하여 마치 정원을 옮겨 놓은 것 같은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Fig. 5). 모자형의 이미지는 모던한 이미지가 54.0%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201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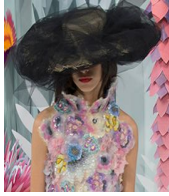


Figure 4.  
2015 SS Chanel  
-www.style.com



Figure 5.  
2015 SS Viktor & Rolf  
-www.style.com



Figure 6.  
2012 FW Giorgio Armani  
-www.style.com

Table 10. Analysis of Design of Bandana Frequency(%)

Brand	Armani P.	A. Versace	Chanel	Dior	G. Valli	G. Armani	Schiaparelli	J.P. Gaultier	Valentino	Total					
		46 (19.0)	15 (6.2)	20 (8.3)	20 (8.3)	45 (18.6)	31 (12.8)	4 (1.7)	48 (19.8)	13 (5.4)	242 (100)				
Shape	hood shape			turban shape			veil shape		etc						
	17 (7.0)			113 (46.7)			81 (33.5)		31 (15.3)						
Color	chromatic											achromatic			etc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4 (1.7)	15 (5.2)	2 (0.8)	2 (0.8)	2 (0.8)	4 (4.1)	10 (4.1)	19 (7.9)	7 (2.9)	7 (2.9)		48 (19.8)	8 (3.3)	21 (36.4)	21 (8.7)
color combination	identical		analogous			contrast		accent		complex		none		etc	
	11 (4.5)		.			39 (16.1)		6 (2.5)		4 (1.7)		182 (75.2)		.	
Tone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3 (1.2)		11 (4.5)			46 (19.0)		31 (12.8)		15 (6.2)		136 (56.2)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		etc					
	218 (90.1)		17 (7.0)			.		.		7 (2.9)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23 (9.5)		87 (36)			19 (7.9)		44 (18.1)		67 (27.7)		2 (0.8)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펠트와 검정색을 사용한베레 모로 모던하면서도 차가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6). 모자형은 챙이 없거나 작은 형, 베레 등으로 시크하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혹은 넓은 챙으로 우아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준 경우가 많았고 의상과 동일한 패턴이나 컬러로 통일감을 연출한 경우도 많이 보였다.

2) 두건형

브랜드별로 장 폴 고티에(19.8%), 아르마니 프리베(19.0%), 지암바티스타 발리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패브릭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싸며 길게 늘어뜨리거나(Fig. 7)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를 감싸는 형태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터번형



Figure 7.  
2014 FW Schiaparellii  
-www.style.com



Figure 8.  
2014 FW Schiaparellii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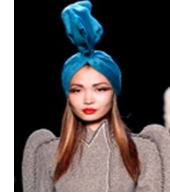


Figure 9.  
2012 FW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igure 10.  
2012 FW Giorgio Armani  
-www.style.com



Figure 11.  
2014 SS A. Versace  
-www.style.com



Figure 12.  
2014 FW Giambattista Valli  
-www.style.com

(46.7%), 베일형(33.5%), 기타(15.3%), 후드형(7.0%) 순으로 화려한 프린트의 의상과 간단한 디자인의 터번이 이국적인 이미지를 주는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Fig. 8). 고티에는 패브릭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머리를 감싸 볼륨감을 주고 머리 위에서 독특한 형태로 고정시킨 터번형의 디자인을 발표했는데(Fig. 9), 수직으로 확장시켜 극적인 느낌을 주었다. 베일형은 머리와 함께 얼굴의 일부나 전체를 덮는 형으로 시폰이나 다양한 메시 소재를 사용하여 시스루 효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Fig. 10), 후드형은 부드러운 드레이퍼리 형으로 머리를 감싸며 길게 늘어뜨려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연출된 경우가 많았다(Fig. 11). 색상은 Bk(36.4%), W(19.8%)와 이국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PB가 많이 나타났고, 배색 없음이 75.2%로 나타나 소재의 믹스보다는 한 장의 원단으로 형태를 만들면서 두른 형이 많았다(Fig. 12). 뉴트럴(56.2%), 라이트(19.0%), 다크(12.8%) 등의 순으로 무채색과 단색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해 다양한 컬러의 의상과 손쉽게 매치될 수 있는 색상 전개가 많았다. 소재는 주로 시폰, 얇은 공단 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머리를 자유롭게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엘레강트(36%), 에스닉(27.7%)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터번이나 베일로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스트롱, 다크 톤의 터번이 에스닉한 분위기를 연출한 경우가 많았다. 두건형은 레이스나 섬세하게 장식된 시스루 소재로 얼굴을 중심으로 늘어뜨리거나 표면광택이 있는 소재를 머리에 돌려 여성적 단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 3) 장식형

장식형은 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헤드드레스 유형으로 소재나 형태의 표현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Fig. 13).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샤넬(37.9%), 장 폴 고티에(25.2%), 조르지오 아르마니(15.4%) 등이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를 많이 발표하였다(Table 11). 샤넬은 헤어핀에 깃털과 비즈 등으로 장식하여 로맨틱한 소녀의 이미지를 연출하였고(Fig. 13), 고티에는 넓은 부채모양으로 퍼지는 독특한 헤드드레스를 발표하였다(Fig. 14). 형태별로 보면 독특한 입체조형물형(36.9%), 헤어밴드·핀형(22.2%), 기타(15.4%)의 순으로 나타

Table 11. Analysis of Design of Ornament Frequency(%)

Brand	Alexis M.	Armani P.	Chanel	Dior	G. Valli	G. Armani	Schiap arelli	J.P. Gaultier	Valentino	Valli	Total			
		23 (4.3)	19 (3.6)	201 (37.9)	23 (4.3)	14 (2.6)	82 (15.4)	7 (1.3)	134 (25.2)	22 (4.1)	14 (2.6)			
Shape	hairband·pin shape		hairnet shape		three-D sculpture shape		tiara shape		wig shape		etc			
	118 (22.2)		70 (13.2)		196 (36.9)		14 (2.6)		51 (9.6)		82 (15.4)			
color combination	chromatic											achromatic		etc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21 (4.0)	27 (5.1)	36 (6.8)	8 (1.5)	5 (0.9)	7 (1.3)	10 (1.9)	68 (12.8)	2 (0.4)	16 (3.0)	63 (11.9)	46 (8.7)	209 (39.4)	13 (2.4)
	identical		analogous		contrast		accent		complex		none		etc	
	16 (3.0)		104 (19.6)		25 (4.7)		22 (4.1)		45 (8.5)		314 (59.1)		5 (0.9)	
Tone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6 (1.1)		39 (7.3)		115 (21.7)		36 (6.8)		37 (7.0)		298 (56.1)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		etc					
	254 (47.8)		66 (12.4)		60 (11.3)		39 (7.3)		112 (21.1)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85 (16.0)		229 (43.1)		131 (24.7)		58 (10.9)		23 (4.3)		5 (0.9)			

5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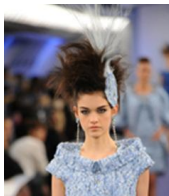


Figure 13.  
2012 SS Chanel  
-www.style.com



Figure 14.  
2010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igure 15.  
2011 FW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났다. 입체조형물형은 파스텔 색상의 커다란 큐브형의 입체적인 조형물이나(Fig. 15) 달 모양의 아방가르드한 장식(Fig. 16)처럼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이 많았다. 헤어밴드·핀 형은 다양한 재질의 풍성한 장식 트리밍을 부착하여 드라마틱한 효과를 준 경우가 많았고, 기타로는 꽃을 이용한 로맨틱한

연출(Fig. 17), 혹은 나비 모양의 조형(Fig. 18)처럼 장식 오브제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색상은 Bk(39.4%), W(11.9%) 등으로 무채색 계열이 많이 나타났으며, 색상 톤은 배색 없음이 59.1%로 가장 많았고, 뉴트럴(56.1%), 라이트(21.7%)로 나타났다. 소재는 패브릭을 비롯해 금속, 비즈, 플라스틱 등



Figure 16.  
2011 FW Christian Dior  
-www.style.com



Figure 17.  
2011 FW Giorgio Armani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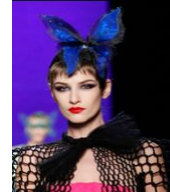


Figure 18.  
2014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Table 12. Analysis of Design of Mixed Style Frequency(%)

Brand	Chanel		Dior		G. Valli		Schiaparelli		J. P. Gaultier		Total			
		107 (47.3)		9 (4.0)		45 (19.9)		1 (0.4)		64 (28.3)				
Shape	bandana+ornament		hat+bandana		hat+bandana+ornament		hat+ornament							
	94(41.6)		125(55.3)		5(2.2)		2(0.9)							
Color	Chromatic											Achromatic		etc
	Hue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7 (3.1)	10 (4.4)	2 (0.9)			1 (0.4)	2 (0.9)	3 (1.3)	1 (0.4)	1 (0.4)	18 (8.0)	2 (0.9)	174 (77.0)
	color combination	identical		contrast		analogous		accent		complex		none		etc
		9 (4.0)		27 (11.9)		24 (10.6)		10 (4.4)		10 (4.4)		146 (64.6)		
	Tone	vivid		strong		light		dark		moderate		neutral		
				4 (1.8)		6 (2.7)		3 (1.3)		18 (8.0)		195 (86.3)		
	Material	fabric		plastic-vinyl		metal		natural object		etc				
		146 (64.6)		40 (17.7)		29 (12.8)		6 (2.7)		5 (2.2)				
	Image	romantic		elegant		avant-garde		modern		ethnic		etc		
72 (31.9)		57 (25.2)		28 (12.4)		59 (26.1)		4 (1.8)		6 (2.7)				

226  
(100)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고, 이미지는 엘레강트 (43.1%), 아방가르드 (24.7%)로 헤어밴드나 핀, 머리 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스럽고 엘레강트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독특한 입체조형물로 아방가르드 감각을 연출한 경우가 많았다. 장식형은 오트 쿠튀르의 디자인 특성을 잘 반영하여 가장 많이 등장한 유형으로 수공예적인 섬세함과 독창적인 형태감, 과감한 연출력을 보여주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었다.

#### 4) 복합형

모자, 두건, 장식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으로 브랜드별로는 샤넬(47.3%), 장 폴 고티에 (28.3%), 지암바티스타 발리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샤넬은 모자와 베일을 믹스해 흰색의 깔끔한 헤드드레스를 선보였고(Fig. 19), 지암바티스타 발리는 베일과 리본 헤어밴드를 믹스하여



Figure 19.  
2011 FW Chanel  
-www.style.com



Figure 20.  
2015 SS Giambattista Valli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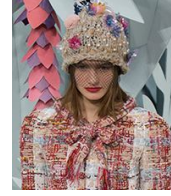


Figure 21.  
2015 SS Chanel  
-www.style.com



Figure 22.  
2015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igure 23.  
2010 SS Christian Dio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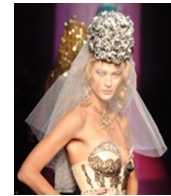


Figure 24.  
2012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20). 유형별로 보면 모자·두건의 복합형(55.3%), 두건·장식의 복합형(41.6%), 모자·두건·장식의 복합형(2.2%), 모자·장식의 복합형(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니트 소재의 비니 형 모자에 검정색 망사로 앞 얼굴에 가린 모자와 베일의 복합형은 다양한 색상의 꽃 조형이 로맨틱한 이미지를 주고 있고(Fig. 21), 그리고 캡이 있는 모자와 베일을 결합한 캐주얼한 모자와 두건의 복합형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Fig. 22). 모자와 두건, 장식의 복합형은 테일러드 재킷과 승마용 스커트에 실크 햇과 머리 망을 매치한 연출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Fig. 23), 베일과 장식의 복합형은 둥근 모양의 입체적 조형물에 흰색의 베일을 늘어뜨려 관능적인 신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과장된 헤드드레스에서 표현되었다(Fig. 24). 색상은 Bk(77.0%), W(8.0%) 등으로 무채색 계열이 80%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색 없음이 64.6%로 가장 많았고, 뉴트럴 톤이 86.3%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소재는 패브릭(64.6%), 플라스틱, 비닐(17.7%), 메탈(1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는 로맨틱(31.9%), 모던(26.1%), 엘레강트(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은 여러 유형이 믹스되어 스타일이 폭 넓게 나타났으며,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도 믹스 앤 매치에 의한 혼재된 표현으로 개성 있고 참신한 연출이 이루어졌다.

### 3. 헤드드레스의 디자인 특징

#### 1) 소재범주의 확대

현대패션에서 소재는 단순한 재료의 개념을 벗어나 작품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Table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크와 같은 고급스러운 패브릭이 62.5% 나타났으며, 비닐과 플라스틱이 10.7%, 금속 소재는 10.8% 등 그 사용 범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새로운 소재, 의외의 소재를 사용하여 신선한 감각을 준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텍스처를 사용하여 표면효과를 독특하게 표현하거나 특별한 질감이 주는 즐거움을 디자인의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녹여내었다. 그리고 특이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위트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크리스찬 디올은 비닐(Fig. 25)이나 플라스틱(Fig. 26), 금속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한 쪽 방향에 고정을 시켜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는데, 우아한 패션 스타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의외의 소재를 헤드드레스에 매치시켜 독창적인 스타일을 연출하였고 재미있고 유쾌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아르마니 프리베는 의상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금속 원판의 헤드드레스를 통해 절제되면서 예리한 감각을 보여주었다(Fig. 27). 동일한 컬렉션에서도 스타일 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헤드드레스를 자주 발표한 장 폴 고티에는 2015 S/S에 헤어 톨과 가발을 이용하여 탐처럼 쌓아 올린 장식에 남녀의 인형 모형 등 다양한 오브제를 결합하여 위트 있으면서 독창적인 헤드드레스를 선보였다(Fig. 28).

이처럼 소재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표현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헤드드레스를 통해 디자인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며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초극세사 섬유나 경량화된 플라스틱 소재는 가볍고 자유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표현이 가능하여 직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조형성을 보여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 2) 극적인 형태감의 표현

오트 쿠튀르의 헤드드레스는 Table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통적인 역할과 구조에서 벗어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독특한 조형을 추구하면서 과장과 확대 그리고 장식의 극대화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다양한 패브릭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추상화하고 이를 실험적인 재단법으로 독특하게 표현하거나 셔링, 러플 같은 디테일을 중첩하여 부피감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수직, 수평으로 확장된 형태감은 공간의 이미지를 컨셉화하여 표현되었고 드라마틱한 시각 효과를 전달하였다.

크리스찬 디올에서는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우아한 헤드드레스를 자주 발표하였는데, Fig. 29는 검정과 붉은 색상에 깃털로 끝부분을 장식하여 새가 날개 짓을 하는 듯 가볍고 부드러운 형태감을 보여준다. 또한 하이테크 소재나 신소재를 활용하여 3차원의 구조적인 형태감을 표현한 경우도 많았는데, 면의 뒤틀림과 꼬임으로 안과 밖, 위와 아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타일이나, Fig. 30과 같이 자유롭게 휘고 구부리면서 중첩 효과를 통해 볼륨감을 표현하거나 Fig. 31과 같이 입체적인 몰딩 효과를 주듯이 추상적인 형태로 감싸는 형태도 있었다. 극적인 형태감은 구조적인 형태 외에도 베일이나 툴 등 비치는 소재 등을 통해 외부와의 경계를 흐리면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아르마니 프리베는 여러 겹 겹친 금속 망 소재를 활용하여 머리와 얼굴 주변에 둥근 형태로 만들어 씩씩 볼륨감을 형성하면서 탈 정형화된 형태감을 보여주어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32).

이처럼 극적인 형태감의 표현은 삼차원의 형태로 디자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였고 드라마틱한 과장과 볼륨감의 표현으로 역동적인 공간을 창조하여 디자인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오트 쿠튀르의 정신을 잘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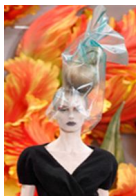


Figure 25.  
2010 FW  
Christian Dio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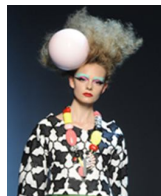


Figure 26.  
2011 FW  
Christian Dior  
-www.style.com



Figure 27.  
2011 SS  
Armani Privé  
-www.style.com



Figure 28.  
2015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igure 29.  
2011 SS Christian  
Dio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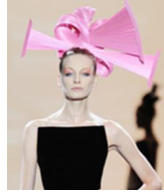


Figure 30.  
2011 FW Giorgio  
Armani  
-www.style.com



Figure 31.  
2012 SS  
Giorgio Armani  
-www.style.com



Figure 32.  
2014 FW  
Armani Privé  
-www.style.com



Figure 33.  
2010 SS  
Chanel  
-www.style.com



Figure 34.  
2010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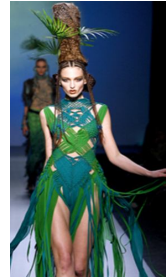


Figure 35.  
2010 SS  
Jean Paul Gaultier  
-www.style.com



Figure 36.  
2010 SS  
Christian Dior  
-www.style.com

### 3) 이미지의 완결적 표현

헤드드레스는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의상과 함께 토탈코디네이트를 완성하여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한 영감과 스토리를 완결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감지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이는 패션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헤드드레스는 과거 일부분만을 차지하던 영역에서 벗어나 현재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스타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데 있어 헤드드레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헤드드레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종종 활용된다. Fig. 33은 로맨틱한 여성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리본 장식의 헤드드레스가 더해져 동화 속의 여 주인공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장 폴 고티에는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헤드드레스를 즐겨 활용하였는데, 금속의 독특한 원형의 헤드드레스와 네크웨어 등 다양한 액세서리로 장식하여 섹시한 미래 여전사의 이미지를 아방가르드하게 표현하거나(Fig. 34) 높게 쌓아 올린 가발과 함께 장식된 나뭇잎으로 원시적인 힘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Fig. 35). 크리스찬 디올은 레이스와 실크의 로맨틱한 원피스에 챙이 과장되게 확대된 모자를 매치시켜 여성의 우아함을 극적으로 강조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Fig. 36).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적 표현이 특징적인 오

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헤드드레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고 더욱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미지 연출에 있어 화룡점정(畫龍點睛)의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 V. 결론

헤드드레스는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개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패션 산업에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헤드드레스는 매 시즌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헤드드레스가 토탈코디네이트를 통해 총체적인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헤드드레스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매 시즌 꾸준히 등장하였고, 브랜드별로는 샤넬과 장 폴 고티에 컬렉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 유형에서 장식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오프 쿠튀르 컬렉션에서 수공예적인 예술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3차원의 입체적인 조형물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는 블랙과 화이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새틴, 시폰, 벨벳, 펠트, 트위드 등 소재의 변형과 사용이 자유로운 패브릭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아하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이나 세련되고 심플한 모던 스타일과 함께 전위적이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드드레스를 유형별로 보면 장식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두건형, 복합형, 모자형 순으로 나타났다. 장식형의 경우 입체 조형물형, 헤어밴드·핀형 등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사용과 비구조적인 형태로 연출되어 독특한 조형성을 연출하기가 쉽고 자유로운 형태이므로 디자이너의 창의적 발상이 극대화 된 것으로 보인다. 두건형은 부드럽고 얇은 패브릭으로 머리전체를 감싸거나 일부분을 감싸는 것으로 대부분 형태가 일정하지 않게

표현되었다. 복합형은 모자형과 두건형, 모자형과 장식형, 두건형과 장식형, 모자형과 두건형과 장식형이 혼합되어 독특한 조형이 완성된 것으로 디자이너의 개성과 철학이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형은 운두가 있고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스타일과 모자의 형태가 드라마틱하게 변형된 창의적인 스타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헤드드레스의 디자인 특징은 소재 범주의 확대, 극적인 형태감의 표현, 이미지 표현의 완결화로 나타났다. 패브릭을 기본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소재의 믹스, 독특한 오브제의 사용으로 풍성하고 독특하게 표현되었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구조적이며 극적인 형태감을 보이는 헤드드레스는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조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토탈코디네이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헤드드레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오프 쿠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를 인터넷 자료와 문헌자료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소재와 색상 등에서 실물과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헤드드레스가 창의성 표현과 다채로운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며 향후 패션산업에 있어 중요한 아이템이자 독립적인 조형물로서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References

Black, J., & Garland, M. (2005). *A History of Fashion*(J. Yoon, Trans.). Seoul: Gandiseowon.(Original work published 1997).

Chang, S., & Lee, J. (2008). *Total Fashion & Beauty Coordination for Image Making*. Seoul: Kyoungchunsa.

Charlotte, M. (2003). *The Fairchild Dictionary of Fashion*(Rev. 3ed.). New York: Fairchild.

Cho, K. (1995). *Fashion Dictionary*. Seoul: Kyoungchunsa.

Cho, K. (2004). *Fashion Aesthetics*. Seoul:

- Soohaksa.
- Choi, Y., & Choi, J. (2014). A Study on Cubism Fashion Style Appearing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2010 S/S-2013 S/S Paris Collection. *Journal of the Fashion Business*, 18(2), 14-28.
- Crane, D. (2004).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M. Seo, Trans.). Seoul: Hangilsa.(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Jeong, H., & Jeong, S. (2008).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 Design of Hat and the Fashion Image in Fashion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0(1), 55-68.
- Jeong, S., & Jeong, H., & Kang, K. (2005). Impression Evaluation of the Hat's Wearer According to Types of Hat design, Hair-style and Hair-length.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7(3), 129-144.
- Kim, E., & Lee, M.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t Fashion of the British Royal Family. *Journal of the Fashion Business*, 18(4), 28-44.
- Kim, M., & Lee, M. (2011). A Study o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Wedding Headdress, Hairstyle, and Necklin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5), 981-992.
- Kim, M., & Lee, E. (2013). The Effects of Culture, Wedding Makeup, and Headdress on Bride's Image Perception.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21(6), 907-920.
- Kim, M. (2013). *Fashion Aesthetics*. Seoul: Kyomunsa.
- Kim, S. (2012). Deconstructive Features of Headdress found in Jean Paul Gaultier's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5), 489-500.
- Lee, H. (2006). A Study on the Hair Style and Hairdress in Cinem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7(3), 235-249.
- Mendes, V., & De La Haye, A. (2003). *20<sup>th</sup> Century Fashion*(J. Kim, Trans.). Seoul: Sigongsa.(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Mok, S., & Cho, J. (2008). The Analysis of the Martin Margiela's Design Code. *Journal of the Fashion Business*, 19(4), 135-152.
- Philippe, P. (2007). *Les Dessus et les Dessous de la Bourgeoisie*(J. Lee, Trans.). Seoul: Hyunsil culture studies.(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Shin, S. (200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Seoul: Soohaksa.
- Stephen Jones & the Accent of Fashion. (2010, October 5), *Samsungdesignnet*. Retrieved Jun 8, 2015, from <http://sungdesign.net/fair/exhibition/report>
- Yang, K., & Chang, M. (2011). A Study on Surrealistic Hair and Headdress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7(1), 105-115.
- Yoo, T., & Kim, J. (1999).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the World Folk Headdress Types. *J. Kor. Soc. Cloth. Ind.*, 1(3), 246-251.
- Yoo, W.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aggerated Costume and Headdress in Western Women-Focused on the 15th-19th Centuri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Yoon, J., & Song, Y. (2012).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Appeared on the Headdress of the 21<sup>st</sup> Century. *J. Kor. Soc. Beauty Cultural Arts.*, 1(1), 64-75.

---

Received (December 24, 2015)

Revised (February 18, 2016; March 14, 2016)

Accepted (March 29, 2016)